

빨간불은 무슨 신호?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빨간불에 자주 걸릴 때가 있는가 하면, 초록불로 모두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상쾌하거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초록불로 쌩쌩 달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빨간불에 걸렸다 해도, “아 좀 숨을 돌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짜증을 내는 급한 성질을 고치라는 신님으로부터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도 아주 비슷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정이 생기더라도 끄끙대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즐거운 삶의 천리교

빨간불은 무슨 신호?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빨간불에 자주 걸릴 때가 있는가 하면, 초록불로 모두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상쾌하거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초록불로 쌩쌩 달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빨간불에 걸렸다 해도, “아 좀 숨을 돌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짜증을 내는 급한 성질을 고치라는 신님으로부터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도 아주 비슷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정이 생기더라도 끄끙대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즐거운 삶의 천리교

자식은 아버지를 우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둔한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우둔하기 마련. 우둔해도 아버지란 소중한 거야.

(계시록·지도말씀 = 1889. 10.14)

이어서 “아버지가 있고서 자식이 있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아버지를 세우는 것은 하나의 리” 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부모를



소홀히 다루는 풍조가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죠? 예를 들어 나무나 꽃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나 잎에만 물이나 거름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뿌리를 더 간직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뿌리, 자신은 줄기, 자녀는 가지와 잎입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먼저 부모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우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둔한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우둔하기 마련. 우둔해도 아버지란 소중한 거야.

(계시록·지도말씀 = 1889. 10.14)

이어서 “아버지가 있고서 자식이 있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아버지를 세우는 것은 하나의 리” 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부모를



소홀히 다루는 풍조가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죠? 예를 들어 나무나 꽃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나 잎에만 물이나 거름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뿌리를 더 간직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뿌리, 자신은 줄기, 자녀는 가지와 잎입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먼저 부모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